



한국 사회의 新관광 현상에 대한 이해*

- ‘힐링관광’의 사회적 의미 -

The Social Meaning of Healing Tourism in Korea

조 광 익**

Cho, Kwang-Eik

요약 :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의 힐링현상의 배경과 힐링관광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신자유주의화가 힐링현상의 사회적 배경으로 간주된다. 국내에서의 힐링현상은 ‘낭만적인 치유’의 의미가 강하였고,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의 접근이 많아 ‘개인적인 정신승리법’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힐링과 힐링관광의 개념에 대한 검토를 통해 힐링과 힐링관광 개념의 한계를 살펴보고, 힐링관광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간략하게 개괄한다. 힐링관광의 사회적 의미 고찰을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신자유주의를 검토함에 있어 경제정책·사상으로서의 측면과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함께 살펴본다. 이 글에서는 힐링관광의 사회적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힐링관광은 신자유주의적 위로 문화이자 치유문화이다. 둘째, 힐링관광은 신자유주의의 문화적 주체형성 기제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힐링관광을 치유와 위로의 관광상품화로 이해하여, 힐링관광을 포함한 힐링현상의 배후에 마케팅의 논리가 감추어져 있다고 강조한다.

핵심용어 : 힐링, 힐링관광, 신자유주의, 상업화, 주체, 문화

ABSTRACT : Healing phenomena such as healing talks, healing concerts, healing books, and healing tourism have swept over Korean society. Healing is considered as something of a ‘romantic cure’ for people who need to rest and recover from their everyday life. Healing phenomena were approached from individual and psychological standpoints rather than from social and sociological ones. For this reason, healing is criticized as ‘faked mind control technology’ in the same way the story of Ah Q of Lu Xun was criticized. After reviewing the concepts of healing and healing tourism within the limits and implications of they impose, liberalism and neoliberalism as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is study were reviewed. This was done in terms of the aspects of economic thoughts and policy and the aspects of ideologies. This study proposes social meanings for healing tourism as follows: First, healing tourism has meanings for the culture of comport and cure in a neo-liberalistic society. Second, healing tourism can be understood as a subject formation process of culture in a neo-liberalistic society. Finally, healing tourism can be regarded as a commodification of cure and fatigue, a psychological comfort for people, and as a selling product in travel and tourism market.

Key words : Healing, Healing tourism, Neoliberalism, Commodification, Subject, Culture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1017816).

** 대구가톨릭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e-mail: kicho@cu.ac.kr

I. 서 론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힐링’ 현상이 등장하였다. 힐링에 관한 담론뿐 아니라 TV 프로그램, 토크콘서트, 언론기사, 오락, 도서, 출판, 논문 등에 이르기까지 ‘힐링’ 열풍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였다(김성희, 2012).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힐링’ 현상은 급속히 퇴조하고 ‘헬조선’이나 ‘금수저’/‘흙수저’가 ‘힐링’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힐링’은 “치유를 통해 어려움을 조금만 참고 견디면 좋은 시절이 올 것”이라는 ‘낭만적인 치유’의 의미가 강하였다. 또 힐링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식의 ‘개인적인 정신승리법’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중앙일보, 2016.02.03). 하지만 ‘헬조선’이나 ‘흙수저’는 이러한 낭만이 ‘환상’이며, 어설픈 위로로 치유되기에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이미 ‘지옥’과 다름없어져 버렸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용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장하성, 2015). 그렇다고 ‘힐링’ 현상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단지 예전의 열기를 잃었을 따름이며, 이제 우리 사회에서 ‘힐링’은 일상적인 용어가 된 것처럼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힐링’ 현상의 의미를 되돌아보기에는 지금처럼 열풍이 지나간 뒤가 더욱 적합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힐링’이 언제부터 등장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2000년대 초부터 요가, 명상 등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힐링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웰빙(well-being)’이나 ‘로하스(LOHAS)’이니 하는 건강 관련 현상이 유행하였다. 국내에서 ‘웰빙’이나 ‘힐링’ 등의 담론과 현상은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에 등장한 것이고, ‘힐링’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본격화된 것으로 이해된다(삼성경제연구소, 2013; 서민, 2013). 이는 우리 사회의 ‘힐링’ 현상이 사회의 구조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하지만 ‘웰빙’, ‘힐링’과

같은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그동안 주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힐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거시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유강하, 2012; 정명중, 2010).

‘힐링관광’의 등장 또한 ‘힐링’ 현상과 무관하게 생각될 수 없다. 관광 여행이 그 자체로 ‘치유’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힐링관광’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데에는 사회적인 ‘힐링’ 현상의 영향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힐링관광은 ‘힐링’ 현상의 직접적인 산물이거나 ‘힐링’ 영역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 여행이 힐링의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런데, ‘힐링’ 현상과 달리 ‘힐링관광’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 힐링관광이 하나의 사회현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담론을 지칭하는 것인지, 혹은 이 둘을 모두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의문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힐링관광’이라는 것이 실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힐링관광이라는 현상과 무관하게 혹은 힐링관광이라는 현상 이전에 하나의 담론으로서 힐링관광이 연역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다름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힐링관광이 힐링 ‘현상’처럼 하나의 관광현상으로 등장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현상과 무관하게 힐링이라는 용어나 담론이 관광 영역에 연역되거나 적용된 것인지 혹은 관광 여행의장에서 사회적 힐링 현상을 활용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힐링관광’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논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힐링관광에 대한 연구는 힐링관광(상품) 개발(가능성)이나 힐링시설의 특징, 힐링관광의 효과, ‘힐링’ 관광(체험)의 욕구, 동기, 만족, 마케팅, 시장세분화 등과 같은 심리적·행동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병용, 2015; 김진옥·김도영, 2015; 이려정, 2015).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힐링관광을 관광기업의 마케팅 등 경제적, 상업적인 목적에 활용하거나 (지역)관광 진

흥의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관심이 많다. 또 힐링 관광을 개인적이고 주관적·심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힐링관광’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힐링관광의 의미를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힐링관광의 개념과 사용되는 맥락, 한계 등과 함께, 힐링관광의 유사 개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본다. 또 힐링관광의 사회적 배경으로 이해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고찰을 통해 힐링관광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토대로 활용한다. 특히 신자유주의를 경제정책·사상으로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로 이해하여 관광자의 주체형성과과정과 연결 짓는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의 힐링관광의 사회적 의미를 도출하고, 힐링관광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II. 힐링관광의 개념과 의미

1. 힐링의 개념과 의미

힐링은 일반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윤천, 2013). 의학적으로는 “질병이 있거나 상처받은 개체를 건강하게 복원하는 과정”을 말한다(서민, 2013). 물론 여기에는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 모두가 포함된다. ‘힐링’에 대한 우리말 번역어로는 ‘치유’가 일반적이거나, ‘치유’의 의미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상대적이어서 분야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다르다. 예컨대 의료나 보건 분야에서는 ‘치유’보다는 ‘치료(treatment)’를 많이 사용하는데, 치료는 “특정 질병이나 증상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이진형·박종선, 2014). 치료는 “치료기관에서의 치료나 검사” 등과 같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 작용이 강조된다. 이에 비해 치유는 치료의 의미와 함께 특별히 ‘마음의 평온’, ‘심리적인 안정’, ‘정신적 위로’ 등의 의미가 더해진다. ‘육체적·정신적 회복’의 의미를 갖는 힐링은 치료보다는 ‘치유’와 더 친화력이 있다.

국내에서 ‘힐링’ 이전에는 주로 ‘웰빙(well-being)’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다. 웰빙은 말 그대로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으로서 ‘참살이’라는 말로 번역된다. 힐링과 마찬가지로 웰빙 또한 학자마다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의 조화를 통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라이프스타일이나 그 문화”로 이해할 수 있다(박종선, 2013: 15). ‘참살이’라는 말처럼 웰빙에서는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강조점이 놓여있다. 다만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웰빙이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웰빙’이 강조되었다면, 한국에서는 복지와 무관하게 ‘개인적 웰빙’으로 이해되어 이를 위한 상품구매에 집중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정명중, 2010). 이로 인해 웰빙은 건강을 위해 유기농 채소를 먹고, 화학조미료를 먹지 않는 등 일련의 노력들에서 보듯 상품 구매와 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웰빙’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 ‘로하스(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담론이 등장하였다. 로하스는 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로하스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은 물론 사회와 지구환경의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생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박주영·노기배·홍석기, 2011; 주현식, 2011). 로하스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지역과 지구적 차원의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과 웰빙의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생활방식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웰빙으로서 환경과 생활방식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웰빙보다 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정명중, 2010). 다만, ‘웰빙’과 마찬가지로 ‘로하스’ 현상도 상업

적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와 연결된 마케팅 트렌드라는 점과, 소비문화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나쁜 소비문화'를 '좋은 소비문화'로 대신하는 식의 규범적 비판이라는 평가가 제기되었다(서동진, 2010). 로하스 담론이 소비를 자율적인 삶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소비가 자율적인 활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생산에 의해 결정되고 지배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라고 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힐링, 치유가 유행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이 점에서 힐링이 우리 사회의 '병리적 징후'라는 진단이 제기되었다(류한소, 2012; 정명중, 2010). 하지만, 힐링 현상은 웰빙과 마찬가지로 주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이해되고, 개인의 자유 의지의 산물로 이해되는 한계가 있다. 힐링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소급되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할 수 없게 된다. 힐링은 외면적으로는 개인의 자유 의지의 산물이지만,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사회적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 극대화를 위한 수단 혹은 성과 극대화나 생존을 위한 '자기계발'과의 관련성이 간과되고 있다. 또 힐링의 상업화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 템플스테이, 힐링여행, 힐링관광 이외에도 심리상담과 같이 사람들이 '위로'와 '치유'를 키워드로 내세우는 각종 서비스와 상품들을 열심히 구매하는 힐링산업, 치유산업이 번창하고 있다(유강하, 2012). 힐링산업이나 치유산업은 결국 돈을 지불하고 '위로'를 사는 것에 다름 아니다(류한소, 2012).

결국 개인적, 심리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힐링 담론의 문제는 힐링의 원인을 개인으로 소급함으로써 사회구조가 도외시된다는 데 있다. 힐링이 사회의 문제를 개인화시킨다는 비판이다(서민, 2013). 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진정한 치유/힐링과는 거리가 멀고, 사람들로 하여금 치유되었다는 느낌/감정을 갖게 하는데 불과하다. 나

아가 이는 사회적·구조적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호도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모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2. 힐링관광의 개념과 한계

힐링관광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에는 몇 가지 난점이 있다. 우선, 관광 여행에 이미 '힐링'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국내의 관광학계에서는 힐링관광을 관광 여행에 적용된 '힐링'의 형태 혹은 힐링의 한 영역이나 한 부분으로 이해한다. 힐링에 가장 적합한 수단의 하나가 관광 여행이라는 인식이다. 관광 여행은 그 자체로 '힐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관광 여행에는 이미 치유와 위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힘들고 지친 일상을 떠나 여행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삶의 위안이고 치유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갈등, 고민, 재충전 욕구 등이 관광 여행의 주요 동기로 작용하고, 관광 여행을 통해 기분전환,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행복감을 높이는 '힐링' 효과를 체험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관광 여행은 그 자체로 치유적인 것이다(이상봉·류시영·송운강, 2013).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힐링은 곧 여행"이라고 생각하거나 "힐링을 위한 방법이나 계획의 하나로 여행을 선택"한다는 면접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오현주·이미순, 2014). 기분전환과 스트레스 해소, 피로회복, 삶에 대한 열정의 회복 등이 힐링관광의 효과라면, 그것은 일반 관광 여행의 효과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예컨대 "생태관광과 템플스테이 역시 힐링관광의 한 분야"라는 기술이 가능하다(오현주·이미순, 2014: 27). 다만, 힐링관광을 이렇게 이해하면, 힐링/관광은 동어반복에 다름 아니게 된다. 이처럼 관광 여행은 그 자체로 '힐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관광 여행에는 이미 치유와 위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광 여행의 특성을 고려하고 동어반복을 피하기 위해, '힐링관광'은 일반적인 관광 여행보다 특별히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 '공감과 치유, 위로를 핵심으로' 하는 관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힐링과 마찬가지로 힐링관광은 "특정한 질병이나 증상을 '치료'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관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힐링관광은 관광 여행을 통해 '치유'와 '위로', '위안',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인 관광 여행과 구분되는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 특별히 '관광 여행을 통해 힐링을 추구하는 것'으로 힐링관광을 규정한다면, 이는 결국 힐링관광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관광 여행이란 본질적으로 힐링을 포함하는 것이기에 특별히 힐링관광이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특별히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힐링관광이란 힐링관광 상품의 구매와 직결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힐링관광이란 '개인이 돈을 주고 힐링관광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는 힐링관광이 '위로를 구매하는 것'이자, 개인적인 치유를 구하는 것이 된다. 이는 힐링관광의 상업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서구에서 힐링관광이라는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힐링관광이라는 것이 학술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 이용자] 힐링 열풍에 기반하여 ... 관광산업체나 지자체가 관광자원이나 상품을 마케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해준다"는 지적이 가능하다(이진형·박종선, 2014: 5).

힐링관광의 개념적 타당성과 정의를 어렵게 하는 또다른 요인은 치료 혹은 치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관광유형이 있다는 점이다. 힐링관광과 유사하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유형에는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이나 '헬스 투어리즘(health tourism)' 혹은 '헬스케어 관광(health care tourism)', '웰니스 관광(wellness tourism)' 등이 있다(김진옥·김도영, 2015;

이정철, 2015; 이진의·김진옥·김남조, 2015). 서구의 관광학계에서는 치유/치료 목적의 관광 개념으로 힐링관광보다는 의료관광이나 웰니스 관광 등의 개념이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이진형·박종선, 2014; Chen, Prebensen & Huan, 2008). 건강을 추구하는 헬스 투어리즘 혹은 건강상태를 개선할 목적의 헬스케어 관광이 웰니스 관광과 의료관광을 포괄하는 가장 폭 넓은 개념이고, 힐링관광은 웰니스 관광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많다(김진옥·김도영, 2015; 이진형·박종선, 2014). 유사 개념간의 위계에 있어서, 웰니스 관광이 힐링관광 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일치하지만, 웰니스 관광과 헬스투어리즘의 위계에 대해서는 일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인다. 예컨대, 웰니스 관광이 "기존의 웰빙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관광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으로 이해하면(박종선, 2013), 그 외연은 헬스케어 관광보다 더 넓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웰니스의 개념이 매우 포괄적인 데에서 기인한다. 이로 인해 웰니스 관광이 "건강증진을 위한 관광뿐만 아니라 농어촌 체험이나 템플스테이 등과 같은 영성체험을 통한 체험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활동을 포함할 수 있어 그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기술되고 있다.

힐링관광을 통해서 개인은 주관적으로 치유의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힐링을 필요로 하는 사회구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주관적인 치유의 느낌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힐링관광의 한계라 할 수 있다. 힐링관광을 통해서 개인적·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의 힐링이 가능할 것이나, 가령, 실업이나 질병, 낮은 소득, 여가시간의 부족 등과 같은 사회구조의 문제들은 힐링관광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힐링관광은 고사하고 관광 여행 자체를 경험하기 어렵다. 혹여 이러한 삶의 장벽에도 불

구하고 힐링여행이 가능하다 해도 그 문제들이 해결될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힐링관광은 거짓 위로에 불과한 것이 되고, 힐링관광 상품을 마케팅하는 자본의 전략이라는 점이 다시 부각된다. 힐링관광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을 간과하고 개인적, 주관적, 심리적인 차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힐링관광을 일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Ⅲ. 힐링관광의 사회적·이론적 토대: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용어상 자유주의의 새로운 사상적 지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여기에서는 주로 이근식(2005, 2009)과 김성구(2014), 장하준(2014)의 선행연구를 참고 하였음].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적)자유주의(liberalism)를 개괄하고, 신자유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1.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르네상스, 종교개혁 및 시민혁명이라는 서양 근대의 구체적인 역사의 전개 속에서 형성되어왔다. 자유주의는 넓은 의미에서(중세의 봉건주의와 대비되는) '근대적 사고방식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사상적으로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된다. 광의의 자유주의는 "인본주의, 현세주의, 개인주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종교와 사상의 자유, 관용, 자본주의 윤리, 폭정에 대한 저항권, 사유재산 및 인권의 존중 등을 모두 포함하는 사상"이며, 이는 "근대적 사고방식 전체"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이근식, 2005). 협의의 자유주의는 근대의 다른 합리적 사상과 구분되는 자유주의, 다른 합리적 사상들

과 공통된 요소들을 제거한, 차별적인 합리적 사상으로서의 자유주의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의 자유주의(liberalism)는 "개인의 사회적 자유의 보장을 사회의 최우선 가치로 주장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자유는 협의의 자유, 즉 강압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권과 재산권을 모두 포함하는 개인의 기본 인권 전체를 말한다. 또한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사회적 자유(social liberty)로서 사상과 출판, 결사, 정치 참여, 종교 선택 등과 같이 개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유를 말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사회적 권력의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자유라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주장하며, 전체주의(totalitarianism)나 집단주의(collectivism)에 반대한다. 전체주의나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은 개인에 우선하는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집단을 위해 개인은 희생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개인주의는 구체적 인간인 개인만이 궁극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국가, 조직(단체, 집단), 계급, 이념 등 그 외 모든 것들은 자체로서의 가치는 없고 오직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써만 가치를 갖는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근대 시민정신을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라고 부른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를 모두 포함한다(이근식, 2005, 2009).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는 절대군주제와 사회적 차별을 반대하는 만인평등 사상,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사상과 언론의 자유와 관용, 그리고 정치적·종교적 자유를 지지한다.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지원을 철폐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경제적 자유주의의 경제정책이 자유방임주의이다. 자유방임주의는 시민혁명 이전 절대군주의 재정수입을 위해

소수의 대상공인에게 주요 산업의 영업권을 부여하는 정책이었던 중상주의 정책에 반대한다. 다만, 자유방임주의가 경제에서의 완전한 자유방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경제에서의 자유거래를 보증하기 위한 공정한 규칙만 남기고 정부의 경제개입은 철폐하자는 주장이다. 이처럼 고전적 자유주의는 진보적 성격의 정치적 자유주의와 보수적 성격의 경제적 자유주의의 두 가지 내용을 모두 갖고 있다. 자유주의는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념적 토대가 되고 있다. 또 만인평등 사상은 근대성의 핵심이다. 이 만인평등의 사상 덕에 근대사회에서는 신분, 성, 종교, 재산 등 여러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던 전근대적 악습들이 철폐되어 왔다.

진보적인 정치적 자유주의는 큰 논란 없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보수적인 경제적 자유주의는 시대에 따라 찬반양론이 거듭되고 있다. 그것은 빈부격차, 불황과 실업, 독과점 등과 같은 시장의 실패로 표현되는 자유방임의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 때문이다(이근식, 2009). 19세기 전반에 최초로 산업혁명을 달성한 영국은 19세기 세계 제일의 경제 강국이 되었으나, 빈부양극화, 독점화, 불황과 같은 시장의 실패도 가장 먼저 분명하게 나타남에 따라 자유방임주의는 비판을 받게 되고 자유주의도 변모하게 되었다.

19세기 후반에 노동자들의 극심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전적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두 가지 새로운 사상이 등장했는데, 하나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이다(이근식, 2005). 사회적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정부와 다수의 횡포로부터 개인 자유의 보호를 주장하므로 여전히 자유주의자이지만,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재분배정책을 주장하는 이론으로 진보적 자유주의(progressive liberalism)라고도 한다. 의회입법을 통해 점진적이고 평화

적인 방법으로 노동문제와 분배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개량주의(reformism)가 사회적 자유주의의 특징이며, 19세기 후반에서 1910년대까지의 영국은 사회적 자유주의가 성공적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나라이다.

진보적 자유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미에서 복지국가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더욱 세력을 얻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구미의 복지국가에서는 단지 분배만이 아니라 불황과 실업, 독과점, 외부효과, 공공재 부족과 같은 시장의 실패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개인의 재산권과 책임감, 자유 등이 국가에 의해 제한받게 되었다(이근식, 2009). 이러한 추세에 반발하여 2차대전 이후 구미에 등장한 것이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이다. 이들은 비대한 정부를 운영하는 현대 복지국가를 사회주의와 동일하게 개인의 자유와 책임 및 재산권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혹은 집단주의라고 비판하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 사유재산의 절대권을 강조하는 고전적 자유주의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다(이근식, 2009).

2.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용어상 고전적 자유주의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자유주의를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것은 경제사상이나 정책, 제도로 이해될 수도 있고, 이를 넘어선 사상체계이자 이데올로기로 이해될 수도 있다.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그 기원적 의미에서 하이에크(F. Hayek)에 의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주창되고, 프리드먼(M. Friedman)의 경제적 정당화 그리고 대처 및 레이건의 정치적 실행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단의 시장 지향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임운택, 2010; 최병두, 2007; Harvey, 2007).

1) 경제 사상·정책으로서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적인 면에서 보면,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현대에 부활한 자유방임주의”이자, ‘시장 근본주의’이다(김성구, 2014; 이근식, 2005). 자유방임주의가 정부의 경제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본주의의 조절을 시장과 경쟁에 위임하며 재산권의 원칙과 주주의 이해를 최우선 시킨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시장 근본주의’ 또는 ‘시장 원리주의’라고 할 수 있다(김성구, 2014: 14-15).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이후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 잡은 견해로,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견해라고 불리기도 한다(장하준, 2014). 경제학적으로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최소정부(minimal state)를 옹호한다.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시장의 기능과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한다. 하지만 고전적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가 최소정부를 옹호하기는 하지만, 신자유주의화는 국가나 사회의 특성과 조건, 상황에 따라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확대를 통해 시장의 기능을 조절·확대하는 역설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즉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내부화는 철저한 국가개입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신자유주의를 ‘국가의 후퇴’로 특징짓는 경우가 있으나, 신자유주의가 국가의 개입을 후퇴시켰다기보다는 그 형태를 변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자유주의가 시장과 경쟁을 우선시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데에서 보듯 국가의 개입을 가급적 배제하는 등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자유란 구제금융 등의 사례에서 보듯 결정적인 순간에는 국가의 개입을 요청하는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전제로 시장이 경제문제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문제들에서도 최선의 대안이라는 시장만능주의

또는 시장근본주의 이데올로기의 현대적 형태이다. 즉 신자유주의는 “사회의 자원배분을 시장의 경쟁원리에 위임해야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과 “시장 경쟁의 전제는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난 개인의 자유며 사적 재산권이야말로 이 자유를 실현하는 절대적 전제 조건을 이룬다”는 것을 신성불가침의 교리로 내세운다(김성구, 2014). 신자유주의의 이념과 실천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윤상우, 2009: 43-44; 최병두, 2007). 첫째,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서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다. 따라서 시장기반적 제도와 관행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내외적인 정책의 주된 방향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심판관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최소 국가론을 주장한다. 둘째, 모든 경제관계에서 시장원리의 확대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대외경제관계에서 무역 및 자본흐름의 장벽을 제거하여 자유무역과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가능케 하는 대외개방과 자유화, 탈규제가 요청되며, 더불어 국내적인 국가-사회관계에서도 시장논리의 확대와 경쟁원리가 강조된다. 여기에는 정부 통제 산업을 직접 매각하는 민영화, 공공서비스(교육, 보건의료, 인프라)의 민자 활용, 복지의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복지정책 축소, 고용부문의 보호막을 제거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포함된다. 셋째, 경제정책에서는 케인즈 주의적 수요관리를 거부하며, 통화주의와 공급측면의 경제학을 채택한다. 특히 인플레이션의 통제에 정책의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를 위해 균형재정을 지향하는 긴축위주의 재정·통화정책, 소득 재분배 보다는 자본축적을 위한 감세 위주의 조세정책이 강조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주요 정책 처방은 통화긴축과 인플레이 억제, 재정적자 감축과 균형예산, 사회보장 삭감과 교육·의료·연금의 민

영화, 공기업 민영화, 노동조합 분쇄와 노동시장 유연화, 자본시장과 금융시장 자유화 등이었다. 넷째, 신자유주의화 과정은 상이하고 때로 얽혀 있는 맥락들에서 추구되는 '경로-의존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국가나 사회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며, 다양한 역사적 궤적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다섯째, 핵심 자본주의 국가들인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부로 확산된 신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케인즈 적 타협에 반대하여 그 자신의 축적을 촉진하고자 하는 자본, 그리고 자신의 물질적 및 이념적 이해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지배계급들의 상층부에 의해 (반)혁명적으로 수립된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질서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정책 패키지는 재정·통화정책(긴축재정과 통화주의), 조세정책(감세), 산업정책(규제완화와 민영화), 노동시장정책(노동시장 유연화), 복지정책(복지축소) 등의 영역에 다양하게 걸쳐 있는데, 국가들마다 선택·적용하는 정책조합들은 상이하며, 정책의 상대적인 강조점도 차별적인 경우가 많다(윤상우, 2009). 이는 신자유주의의 규범이 각 사회의 역사적 특수성, 정치적 세력관계, 기존 제도편제의 경로의존성 등에 따라 신자유주의화 과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경제적 원리의 사회적 확장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하이에크나 프리드먼과 같은 경제학자들의 이론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고용유연화와 탈규제로 대표되는 제도와 정책, 규범 등에 한정된 것도 아니다. 이 모두가 신자유주의에 해당되지만,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자유주의는 특정한 정책과 교의, 학설, 제도, 정책, 규범 등으로 환원될 수 없다(서동진, 2003). 신자유주의를 경제학적으로 이해하면, 신자유주의의 정책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 및 빈곤, 양극

화를 더욱 심화시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널리 받아들여지고 호명되는 이유를 파악할 수 없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는 “자유 자체가 강제를 생성하는 특수한 역사적 시기”의 이데올로기로 이해된다(한병철, 2015: 10).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자유가 곧 강제와 동의어가 된다. 이데올로기로서 신자유주의는 당위(‘해야 함’)나 외부의 강요에 기초한 ‘부정성’이 아니라 자유, 내적인 동기 부여와 같은 ‘긍정성’(‘할 수 있음’)에 기반 한 이데올로기로서, 개인의 ‘자기착취’를 야기하는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한다. 무한경쟁과 최대의 성과가 선인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이는 개인의 자발성과 결합되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자발성은 ‘자기착취’와 동의어가 된다. 자유에 기반 한 ‘자기착취’는 ‘강제에 의한 착취’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큰 강제를 만들어낸다. 자기의 의지에 반하여 착취하는 타자의 착취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자유의 착취야말로 최고의 성과를 올린다는 것이다. 또 긍정성(‘할 수 있음’)에 기반 한 자유는 명령과 금지를 만들어내는 부정성(‘해야 함’)의 규율보다 더 큰 강제를 낳는다. ‘해야 함’에는 제한이 있지만, ‘할 수 있음’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병철(2015)은 신자유주의가 “자유 자체를 착취하는 매우 효율적이고 영리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한다(p.12). 스스로 자유롭다고 여기는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실제로는 자유롭지 않다. 오히려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착취한다는 점에서 “절대적 노예”라는 것이다(한병철, 2015: 11). 신자유주의의 자유는 외면적인 자유일 뿐이고, 실제로는 소진과 탈진을 야기하

는 강제이다(이는 힐링현상의 사회적 배경이 된다). 자유가 곧 강제가 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역설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신자유주의가 개인의 끝없는 경쟁과 자발적인 성과 추구에 기초한 성과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과사회는 피로 사회에 다름 아니게 된다.

또 Harvey(2007)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시장과 무역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고 가정하는데(p.23), 이는 자본주의 경제와 관련된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한다. 신자유주의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지만, 신자유주의가 앞세우는 자유는 자유 시장, 자유 무역, 자유 송금, 사적 소유의 자유 등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통해 실현되는 것은 다름 아닌 “자본의 자유”일 뿐이다(한병철, 2015: 13). Harvey(2007)는 신자유주의가 주변부 국가들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핵심 국가들의 지배적 경제-정치논리가 되고 있다고 기술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은 ‘전통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호소’에서부터 ‘폭력에 의한 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신자유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은 폭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권력은 “자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한병철, 2015: 28-29). 자유를 부정하는 폭력의 형식이 아니라 점점 더 “허용적 형식”을 취해간다는 것이다. “너그럽게 허용하는 친절한 권력은 부정성을 벗어버리고 자유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물론 권력이 폭력이나 억압의 형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배제하고 금지하고 검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신자유주의는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처럼 아직도 권력이 폭력이나 억압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신자유주의로의 자본주의 경제의 변화는 이

체제에 걸 맞는 주체의 생산이 필요하다(문강형준, 2012, 2015). 신자유주의적 사회로의 재편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주체는 생산과 소비 등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무한경쟁’과 ‘사익추구’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체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은 어린 시절부터 경쟁, 승리, 이익, 성공을 위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법을 익히게 된다(문강형준, 2012, 2015). 신자유주의에 적합한 이데올로기적 주체는 자기경영, 자기관리를 삶의 원리로 체득하게 된 주체다. ‘자기 자신의 경영자’가 곧 신자유주의적 주체가 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모든 이에게 자기 경영을 하는 ‘기업가’가 되기를 촉구하는 체제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주체가 ‘(자기) 기업가적 주체’(서동진, 2003, 2009, 2010; 박소진, 2009), 혹은 ‘자기계발 주체’(서동진, 2009) 혹은 ‘성과주체’이다(한병철, 2015).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무한경쟁’과 ‘사익추구’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체현하여, 스스로를 끊임없이 관리하고 통제하여 최고의 효율을 목표로 한다. 푸코의 주장처럼, 근대적인 주체가 노동과 비노동(여가)이 명확하게 구분된 근대 사회에서 공장과 학교, 군대, 기업 등에서 만들어진 규율을 내면화 하였다면,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외부로부터의 규율이나 명령, 법의 형태가 아니라, 자발적인 욕망과 선택이라는 형태로 작동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주체화는 자유와 자율, 동기부여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한병철, 2015). 신자유주의의 주체는 ‘자신이 예측된 존재(subject)’가 아니라 “계속해서 스스로를 기획하고 창조해가는 자유로운” 존재(project)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 자체가 더 효과적인 예측화의 형식이라는 주장이다. 외적 강제가 타인의 억압에서 해방되었다고 믿지만, 사실 내적 강제와 자기 강제에 예측되어 있다는 것이고, 자아는 스스로 자유롭

다고 믿지만 사실 자아는 성과와 최적화의 강요라는 형식으로 내적/자기강제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병철(2015)은 신자유주의 사회의 주체가 ‘자기 자신의 경영자’이자 ‘자기 자신의 착취자’이며, ‘자기 자신의 감시자’라고 주장한다(한병철, 2015). 결국 이러한 신자유주의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저항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만든다”(한병철, 2015). 즉 신자유주의적 성과사회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사회나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실패의 책임을 돌리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지배질서의 특별한 영리함”이다.

IV. 힐링관광의 사회적 의미: 관광에서의 신자유주의화

1. ‘신자유주의적 위로·치유문화’로서 힐링 관광

힐링관광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의 ‘위로·치유 문화’로 이해할 수 있다. 치유문화는 템플스테이, 요가, 명상, 여행 같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마음을 다스리는’ 각종 정신요법들이 유행하는 현상”을 말한다(류한소, 2012). 신자유주의적 위로가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피로사회로 변모하였고, 이로 인해 생존을 위해 문화적 도피가 필요하며, 병리학적 상황으로 벗어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1) ‘피로사회’의 문화적 귀결

힐링관광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해는 힐링 관광이 개인의 ‘치유’나 ‘힐링’을 위한 여행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여기서 힐링은 개인적이고 주

관적인 것이며,¹⁾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것이다 (Verhoef & Mulkins, 2012). 이는 매우 직관적이고 단순한 접근이지만, 대부분의 관광연구에서 볼 수 있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관광 여행이 갖는 심리적 치유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하려는 연구가 많다. 힐링관광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개인들이 힐링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이나 사회구조에 대한 관심은 소홀해지기 쉽다. 힐링관광이 등장하는 사회적 배경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신자유주의는 ‘무한경쟁’과 ‘개인책임’을 신봉하고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 사적소유, 이윤율이 최고의 덕목인 사회”로서, 사회보장의 축소를 신봉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과거에는 고용자와 국가의 의무였던 사회적 보호(연금, 보건의료, 상해로부터의 보호)를 개인적 책임 시스템으로 대체”함에 따라 개인을 소진시키고, 피곤한 사회가 되게 한다(Harvey, 2007: 204).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사회로의 변모는 지난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으로 본격화되었다. 금융위기를 전후로 한국 사회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정리해고, 명예퇴직의 일상화에서 보듯 고용유연성은 증가하였다. 원가절감이라는 이름으로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연봉제가 확대되었으며,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는 개인들의 생존 경쟁을 격화시키고, 무한경쟁이 생존조건이 된다. 더욱이 한국과 같이 사회복지가 미흡한 사회에서 개인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구성원에게 끊임없이 성과와 실적을 요구하고 이를 비교·평가하며, 다시 이를 승진, 임금, 고용 등과 직접 연계하는 신자유주의 사회는 ‘성과

1) Verhoef & Mulkins(2012)는 중요한 힐링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힐링의 의미를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무엇보다 힐링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다.

사회'에 다름 아니다(한병철, 2012). 성과사회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착취하는 사회'이다. 무한경쟁에 기반 한 자발적인 성과추구는 사실상 '자기착취'와 다르지 않다. 자기착취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로서 타자 착취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많은 성과를 올린다(한병철, 2012). "생존을 위해 최대한의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성과사회는 '피로사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는 '피로사회'이자 '성과사회'이다(한병철, 2012). 이러한 피로사회에서는 힐링과 힐링관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힐링관광은 성과사회/피로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개인의 원초적이고 문화적 요구(혹은 도피)라고 할 수도 있다. "매일 반복되는 치열한 사회생활과 학업으로 지친 심신"을 "원초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힐링이고 힐링관광이라는 것이다(오현주·이미순, 2014: 32). 나아가 힐링관광이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생산요소에 불과한 개인이 자신의 존엄을 회복하고자 하는, 또는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생존을 위한 자구적이고 문화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힐링관광 현상은 '힐링'을 원하는 개인들이 많다는 데서 기인한다. 무한경쟁이 삶의 조건이 되고, 삶 전체를 '무한책임 경영' 해야 하는 신자유주의적 '피로사회'에서 개인은 항상 피로와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문강형준, 2015). 피로사회는 휴식과 힐링, 치유를 필요로 한다. 피로사회는 개인들에게 휴식과 정서적 안정의 필요를 증폭시킨다. 여행과 관광이 그 자체로 '힐링'을 주지만,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과 관광, 즉 '힐링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유형, 관광상품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휴식과 치유의 필요가 증폭된 결과라 하겠다. 피로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정신요법"의 하나로서 힐링관광이 필요하게 된다. 이 점에서 힐링관광은 성과사회/피로사회

의 (문화적, 정서적) 귀결로 볼 수 있다. 힐링관광은 성과압박과 피로, 불안에 지친 개인들에게 위안과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2) 신자유주의의 병리학적 귀결

병리학적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적 "성과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한병철, 2012: 24). 여기에서 우울증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 후기 근대적 인간의 좌절에 대한 병리학적 표현"이 아니다. 또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명령이 우울증을 낳는다"는 의미도 아니다. 오히려 "성과를 향한 압박"이 우울증을 초래한다(한병철, 2012: 26).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무한경쟁 사회에서 성과에 대한 압박과 삶의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중요한 유병요인임을 시사한다.

한국 사회의 병리적 징후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12년째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살률이다. 특히 노인자살률, 청소년자살률, 여성자살률, 자살증가율 또한 모두 OECD 국가 중 1위이다. 또한 국내의 성인 가운데 정신질환 진료자 수는 2010년에 231만 명으로 2005년(170만 명)에 비해 35.9% 증가하였고(삼성경제연구소, 2013), 기분장애, 불안장애를 경험한 사람이 5년 전에 비해 26% 증가했다는 보고도 참고할 수 있다(정지혜·김민희, 2012). 신자유주의 사회의 무한경쟁이 야기하는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지배하는 '불안한 시대'의 한국 사회에 대해 한 외신에서 "전 국민이 신경쇠약에 걸리기 직전의 상태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도 있다(McDonald, 2011). 이러한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는 각종 치료가 만연하고 있다.²⁾ 이러한 병리학적 원인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다. "개인의 고통이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2) 대중이나마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치료, 예술치료, 놀이치료, 심리치료, 연극치료, 원예치료, 웃음치료, 보석치료, 풍수치료, 작업치료, 명상요가치료, 독서치료, 시 치료, 글쓰기치료, 이야기치료, 드라마치료, 영화치료, 철학치료, 문학치료, 여행치료, 여가치료 등(정명중, 2010).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에까지 전이 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이 과연 개인적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유강하, 2012: 148).

우울, 신경쇠약, 극도의 스트레스, 자살과 같은 병리적 현상은 무한경쟁이 삶의 조건이 되는 신자유주의의 병리적 특징이다(한병철, 2012). 개인의 생존은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비장한 고립감과 공포감"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불안과 위협은 증폭될 수밖에 없고, "염려와 불안을 삶의 일부로 껴안고 살아야" 하는 개인은 "신경쇠약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정명중, 2010: 117). 이러한 불안 심리를 파고드는 것이 바로 웰빙, 힐링, 재테크, 처세 등과 같은 담론이다. 신자유주의의 병리학적 상황은 힐링관광을 위한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관광 여행이 스트레스, 우울, 정서불안 등 심리적 치료 효과가 있다는 실증연구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가령,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가 "정신적 치유 및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과 자신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김미정·유형숙, 2015). 이 점은 힐링관광이 스트레스와 같은 병리학적 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것의 '유행'은 곧 그것의 '결핍'과 같다"는 명제는 변증법적으로 타당하다. 즉 "오늘날 치유라는 말이 유행한다는 사실은 무엇인가가 치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정황적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정명중, 2010: 101) 우리 사회에 치유나 치유문화가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병적인 징후가 만연해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2. 문화적 주체 형성 기제로서의 힐링관광

1) '자기의 테크놀로지'로서 힐링관광

푸코는 개인이 학교, 공장, 군대, 감옥, 병원 등의 근대적 규율장치를 통해 근대적인 규율을 내면화함으로써 근대적 주체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Foucault, 1990, 1994).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더 이상 근대적인 규율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한병철, 2015).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이러한 근대적 규율장치 대신 자율적인 자기관리, 자기 경영을 통해 자기의 가치를 생성한다. 훈육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관리하고 경영하는 주체가 곧 신자유주의적 주체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주체가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현시키는 행위가 곧 자기계발(self-improvement)이다.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은 '자아의 기업가화'라는 '자기 지배'(the government of self)의 기술이자 권력이라 할 수 있다(서동진, 2010). 기업가적 자아로 자기를 변형하고 계발하기 위해 개인들은 자기계발 서적을 읽고, 영어 학원을 수강하며, "프랭클린 플래너"를 이용한 시테크 등 자기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자기계발적·문화적 실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서동진, 2009). 자기계발의 원리는 자기의 발전과 성숙이라기보다는 성과의 극대화이며, 이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른바 자기의 '경쟁력 강화'이다. 자기계발, 자기경영, 자기관리의 주체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물론 자기 자신의 실패의 책임 또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러한 식으로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탄생한다.

힐링관광은 신자유주의적 주체가 자신을 문화적으로 경영하는 '자아의 기술(technology of self)'이며, 자신을 '최적화' 하는 기술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힐링은 "효율과 성과의 이름으로 모든 기능적 약점, 모든 정신적 억

압을 치료를 통해 깨끗이 제거함으로써 자아의 최적화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한병철, 2015: 47).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힐링이 단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치유의 방편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힐링, 치유 자체가 하나의 자기개발로, 자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아 최적화의 기술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힐링관광은 개인이 성과 극대화를 위해 자신을 최적화하는 기술이며, 외부의 규율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인 동기에 의한 자발적인 행위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사회적 성공이나 경제적 이익 혹은 생존을 위해 힐링관광을 활용한다. 힐링관광을 통해 '치유'와 '위로'를 얻고, 피로를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신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다. 힐링관광을 통한 힐링과 치유를 통해 자신의 효율성, 경쟁력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관리는 자기의 경쟁력 강화의 기술이며, 자기를 경영하는 기술이다. 힐링관광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내적인 필요와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행위이다. 어디까지나 내적인 희망, 욕망의 형식을 갖는다. 이 점에서 힐링관광은 주체가 자유롭게 행사하는 '자아 최적화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 여행을 통해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최적화를 이루는 것과 같다. 심리적 최적화는 '성과사회'에서 자신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아 최적화의 기술로 이해된다. 이는 힐링관광이 자기를 최적화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힐링관광은 단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상의 단조로움을 치유하는 즐거움 이상의 것이 된다.

2) 자기개발의 형식으로서의 힐링관광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걸 맞는 주체는 자

기경영, 자기관리를 삶의 원리로 체득하게 된 주체, 곧 '기업가적 주체'이면서 동시에 '자기개발적 주체'이다(박소진, 2009; 서동진, 2003, 2009, 2010). '기업가적 주체'는 노동과 비노동(여가)의 경계가 사라진 탈근대 자본주의에서 끊임없이 자기관리·자기경영, 자기강화라는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자기개발을 수행하는 주체를 말한다. 여기에는 노동자, 경영자, 학생, 주부 등의 직업의 구분과 무관하다. 가령, 누구나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1인 기업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주체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영역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이루어진다.³⁾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화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대 초 권위주의 정권의 해체와 민주화 흐름 속에서 자유주의적 욕구와 사상이 싹트던 시점에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과 경제개방 정책으로 인해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경제위기와 함께 출범한 김대중 정부 하에서 금융지원의 대가로 IMF의 요구로 급속하게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되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신자유주의화가 진전되었다(박소진, 2009). 이러한 신자유주의화는 정책의 변화 뿐 아니라 사회적 에토스 혹은 사회문화적 논리의 차원에서 사회구성원의 새로운 주체화 전략과 결합된 것이다. 즉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적 주체화는 경제영역에서는 "지식경영, 인적자원개발, 지식노동자, 평생학습, 자기주도성"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경제적 주체성과 "자기강화와 자기책임의 시민"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정치적 주체성으로, 교양, 세련, 품위, 우아, 능력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문화적 주체성으로 나타났다(서동진, 2009).

가령, 경제영역에서 1990년대 확산된 새로운 경영담론의 맥락에서 새로운 노동주체의 주체성이 재구성되었다. 예컨대, 기업문화, 권한위임,

3)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화에 따른 자기개발 주체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는 서동진(2009)을 참고.

경력개발, 연봉제를 위시한 성과배분제, 다면평가제와 목표관리제 등의 성과평가체계, 인적자원관리 등 경제영역에서 주체성을 지배하고 관리하기 위해 생산되고 소비된 수많은 경영담론과 테크놀로지는 바로 노동주체의 자기(self)를 겨냥하며, 그런 점에서 이는 자아(self)의 생산과 지배라는 과정과 불가분한 것이다(박소진, 2009). 또 19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성공학 이후'의 자기개발 담론 또한 자기경영, 자기관리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문제화하고 자기를 '기업가'로 재설정하게 하였으며, 이 역시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자아를 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한다(서동진, 2009).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주체화의 결과 자기개발하는 주체, 기업가적 주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주체화는 경제, 노동, 교육의 영역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대중문화 등과 같은 여가의 영역 안에서도 주체화의 실천이 발견된다(서동진, 2009, 2010). 그 결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스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어학원 등 각종 학원을 다니고, 학위를 취득하고 악기연주를 하며 다양한 인문학 스펙을 쌓는 자기개발주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여가와 관광의 장 또한 자기개발의 예외 영역이 아니다. 예컨대 관광객들은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이나 배움을 통해 학습하고 그에 따른 성취감은 정서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끌어내어 힐링에 도달한다"며 관광 여행을 통해 '성취감'을 느낀다고 강조한다(오현주·이미순, 2014: 33). 힐링 여행의 하나로 간주되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또한 템플스테이를 "자기성장"이나 "긍정적인 자아성찰의 기회"로 생각하며,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이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느낌이 든다거나, "자기성찰을 통한 내면적 성장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김미정·유형숙, 2015) 이것은 힐링관광이 자기개발의 형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힐링관광은 교양이나 품위, 능력, 자아성찰이

라는 이름의 문화적 주체형성을 위한 논리이자 기제로 볼 수 있다. 힐링관광은 힐링 콘서트, 힐링 음악, 힐링 북, 힐링 토크 등과 같이 자신의 문화적 고상함과 교양을 위해 필수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제 개인은 힐링관광을 통해서 위안 뿐 아니라 문화적 교양을 얻고 문화적 자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힐링관광도 자기개발 문화의 소비이면서 동시에 자아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된다. 관광 여행도 열심히 다니고, 해외 견문과 식견을 높여서 자기의 스펙을 높이는 자기관리 기술이라는 것이다.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신상품에 정통하며 젊은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관리의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이다. 베스트셀러가 더 잘 팔리고, 방송에 소개된 맛집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유행하는 음악과 패션에 민감하듯이, 힐링관광도 자기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3) 자기착취의 형식으로서의 힐링관광

신자유주의 사회의 생존조건인 무한경쟁에 의해 개인은 자기개발에 참여한다. 이 자기개발은 외면적으로는 자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인 것이다. 나아가 자기개발은 주체가 자기를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하였다. 가령 IMF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일반화된 성과배분 임금제인 연봉제의 도입은 구성원 각자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지급됨으로써 보다 많은 연봉을 위해 각자 스스로를 관리하도록 만든다. 여기서 연봉제는 단순히 임금의 지불형태의 변화인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노동주체의 주체성을 관리하는 테크닉"인 것이다(서동진, 2010). 보다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수한 성과를 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관리는 자유선택이 아닌 필수요소가 되었다. 자기개발이 자발적이거나 자율적인 것이 아니고 강제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개발'은 또한 '자기착취'이기도 한 것이다. 자기개발의 한 형

식인 힐링관광은 곧 자기착취의 형식이기도 하다.

자기착취의 형식으로서 힐링관광은 ‘자기계발’, ‘자아의 기술’, ‘자기 최적화의 기술’의 논리적 귀결에 다름 아니다. 힐링관광이 자발적인 ‘치유’가 아닌 ‘의무’, ‘강제’, ‘필수’가 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자발적이지 않은 힐링관광은 힐링이 아니라 자기착취가 된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여행, 더 많은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힐링관광은 더 이상 치유와 자유가 아니라 강제이자, 자기착취에 불과하다. 보다 많은 성과를 위해 피로가 제거되고, 교양이 충만한, 생산성 높은 노동주체로 자기를 최적화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이제 빛을 내서라도 ‘힐링’이라는 이름의 관광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좋다.

‘힐링’ 관광 여행을 통한 자아의 최적화는 외부의 강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내적 동기부여에 의한 자발적인 행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힐링관광이 외적강제가 아닌 내적 동기, 자발성에 입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주체의 이익, 성과, 경쟁력을 위한 것이므로 사실상 강제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이러한 자발성에 기초한 자아 최적화가 더 많은 성과와 임금, 즉 생존을 위해 불가결한 것이 된다는 점에서 힐링관광은 단지 여행과 관광을 통한 ‘치유’를 넘어 노동주체 자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기착취의 한 형식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힐링관광은 자유로운 여가 관광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강제적인 노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가? 이는 자기계발의 속성과 관련되는 질문이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과 비 노동의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다. 하지만 신자본주의 사회의 자기계발은 노동과 비 노동의 경계를 희미하게 한다. 가령, 출근 전 자기계발을 위해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아침형 인간’이나 퇴근 후 자기계발에 분투하는 ‘저녁형 인간’은 모두 노동과 비 노동의 경계가 없어진 세계를 보여준다. 자기계발로 인해 여가시간도 여가시간

이 아니라 노동시간에 다름 아니게 된다. 이는 노동시간의 단축이 곧 여가시간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은 것도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한국 사회에서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단축되어 왔지만, 여가시간의 부족은 여전히 여가 관광 참여를 가로막는 제약요인 1, 2위이다. 힐링관광이 자아 최적화의 수단이라고 할 때, 외면적으로는 자유나 관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반강제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힐링관광이 자기계발이면서 동시에 자기착취가 되는 것이다.

4) 신자유주의적 통치와 힐링관광

신자유주의 통치양식의 주요한 특징은 “직접적인 간섭 뿐 아니라, 책임감 있고 도덕적인 개인과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개인을 하나로 합쳐 그러한 개인을 이끌고 통제하는 간접적인 기술에 기반을 둔다는 점”이다(박소진, 2009: 17).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행위 선택은 자유의지에 따른 자기 결정이며, 개인의 행위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혼자 책임지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적 위험에 대한 책임은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 개인이 모두 져야하는 것으로 된다. 사회적 책임의 영역이 더 이상 사회나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조건 혹은 준비의 문제로 전환되게 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이러한 통치기술 속에서 스스로를 자기 규제와 자기 관리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기에 이른다(박소진, 2009). 신자유주의 시대의 유일 권력이 된 자본은 신자유주의적 주체의 ‘자유’와 ‘해방’을 통해 개인을 지배한다. 힐링관광이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일시적으로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치유를 가져올 수 있으나, 힐링관광을 필요로 하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오히려 힐링 현상을 개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현상유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적 병리 현상이나 고통의 문제를 ‘개인’ 또는 ‘자기’라는 차원으로 축소하거나 환원

해버리는” 것은 사회구조에 눈감게 한다(정명중, 2010: 106). 힐링관광을 통한 자아의 최적화가 외부의 강요와 억압이 아닌 자유와 자율에 기초한 행위라는 믿음은 힐링을 강제하는 구조를 은폐함으로써, 힐링관광이 사회적 지배의 현상유지에 기여하는 측면을 간과하게 한다. 이는 결국 힐링관광이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보다는 온존하게 되는 데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아 최적화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쳇바퀴처럼 끝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아 최적화는 새로운 형식의 예속화에 다름 아니게 된다(한병철, 2015: 48). 즉 신자유주의 체제의 주체는 자아 최적화의 명령, 즉 더 큰 성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강제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힐링은 킬링”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한병철, 2015: 49-50). 힐링관광이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불안감이나 압박감 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데 일조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힐링관광이 힐링을 필요로 하는 사회구조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발 더 나아가면, 힐링관광이 현상유지에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 지배질서에 순응하게 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체제유지에 일조하는 한계가 있다.

3. ‘치유’의 상품화로서의 힐링관광

자본주의 사회에서 관광이나 여행은 불가피하게 상품화와 연관된 것이다(조광익, 2006, 2010). Harvey(2007)의 지적처럼, 자본주의하의 관광 여행이란 “성·문화·역사·유산의 상품화, 구경거리나 요양 치유로서의 자연의 상품화, 독창성·심미성·특이성으로부터 독점지대 추출(예로, 작품이나 예술) 모두는 실제 상품으로 결코 생산되지 아니한 물건들에 가격을 설정하는 것에 해당된다”(Harvey, 2007: 201-202). 나아가

그는 ‘모든 것의 상품화’를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사랑이나 애정과 같은 감정 등 이전에는 결코 상품화될 수 없는 것도 상품화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힐링’을 상품화한 ‘힐링관광’ 또한 신자유주의의 특징인 ‘모든 것의 상품화’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힐링관광, 힐링여행은 ‘위로’와 ‘치유’, ‘휴식’, ‘자유’, ‘심신안정’ 등을 상품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힐링관광이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돈을 지불한 관광 여행을 통해 위로와 치유를 구매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힐링관광 이외에도 힐링 푸드, 힐링음악, 힐링콘서트, 힐링무비, 힐링서적, 힐링캠핑, 힐링 피트니스 등 다양한 ‘힐링’ 산업이 번창하고 있다. 이러한 힐링 현상을 ‘치유문화’로 부르거나, 힐링이 “트렌드를 넘어 문화로까지 발전되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오현주·이미순, 2014). 확실히 힐링관광은 다양한 치유상품의 하나로 보인다. 힐링관광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힐링푸드’(식음료), ‘힐링숙박’, ‘힐링체험’ 등의 이름으로 상품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신동일, 2013). 일본의 경우에도 1990년대 후반 힐링열풍이 불어 ‘릴렉세이션(relaxation)’ 산업이 본격화되었고, 구미의 경우에도 멘탈케어, 명상/요가, 스파 등의 힐링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휴양관광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대중화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13).

이러한 치유문화의 변성과 치유의 상품화는 피로사회와 성과사회에서 지친 ‘탈진한 자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과 피로, 불안에 지친 개인들이 많으니 이들의 심리를 겨냥한 치유, 위로상품이 넘쳐나는 것이다. 또 다양한 힐링산업의 번창은 사람들이 위로와 치유를 내세우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힐링이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버린 것이다(문강

형준, 2015). 우리 사회의 다양한 힐링 현상의 이면에는 자본의 마케팅의 논리가 숨겨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지어 “힐링관광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힐링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나의 트렌드로서 힐링이라는 단어를 수많은 관광지, 관광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 지경이다. 이는 힐링관광이 힐링열풍에 편승했다는 것과 힐링 상품화의 한 형태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과 몇 년 전에 등장한 힐링관광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최근에 이르러서는 ‘힐링’ 현상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애초에 힐링관광, 힐링여행의 수요가 먼저 있었다기 보다는 “최근 가장 떠오르고 있는 트렌드인 힐링이라는 개념을 관광분야에 접목”하여 상품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이다(오현주·이미순, 2014).

그렇다면, ‘힐링’ 관광이란 일반적인 관광과 얼마나 다른가? 온천여행이나 의료관광 등 직접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이 아니더라도 일반 관광 여행에서도 ‘위로’와 ‘치유’를 얻을 수 있다. 이 점에서 ‘힐링관광’ 뿐 아니라 모든 관광 여행이 ‘힐링’ 관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도 ‘힐링’을 강조하며 힐링관광, 힐링여행을 내세우는 것은 치유, 치료적 의미가 있는 관광 여행에 ‘힐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새로운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상품화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힐링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예술이나 문화도 마찬가지다. 굳이 힐링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아도 음악, 미술, 공연, 독서 등의 활동에는 힐링이 내포되어 있다. 우울할 때 듣는 음악이나 독서를 통해 우리는 위안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문화 예술의 힘이다. 그렇지만 ‘치유무용’이나 ‘힐링콘텐츠’나 ‘힐링아트’나 하는 것은 힐링의

상품화에 다름 아니다.

다른 한편, 누구나 힐링관광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힐링관광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힐링, 웰빙 등을 표방하는 상품들은 유기농 식품이나 유기농 농수산물처럼 대체로 가격이 비싼 편이다. 힐링관광 상품은 힐링을 내걸어 기존의 관광 상품을 ‘업그레이드’하고 대신 비싼 가격을 요구한다. 예컨대 “웃음치유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하는 업체가 내놓는 ‘행복여행’의 2박 3일 비용은 약 100만원을 호가 한다”(류한소, 2013). 저소득층은 이런 고가의 힐링관광 상품을 소비하기 어렵고, 힐링관광 상품의 주 구매자는 중산층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과 여행에서 위로와 치유를 받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힐링여행, 힐링관광을 경험할 수는 없다. 이러한 힐링관광 상품 소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사회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 또 힐링관광 상품은 계층간 구별 짓기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다. 힐링관광 산업은 이러한 위로와 치유시장을 계속해서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힐링관광 상품을 개발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한국 사회의 힐링 현상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무한경쟁과 이익 추구, 시장의 확대와 국가의 퇴각(혹은 국가의 개입 형태의 변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는 성과사회와 피로사회를 낳고 이를 체화한 개인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을 계발하고 경영하며, 관리한다. 이렇게 개인은 신자유주의에 최적화한 ‘자기계발 주체’로 재탄생하게 된다. 힐링관광 현상은 힐링이 관광의 장에 확장, 적용된 것이자, 관광이 힐링에 가장 적합한 수단의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이 그

자체로 치유적이기 때문에 힐링관광은 개념적 동어반복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특별히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또 힐링관광은 개념적으로 웰니스 관광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동안 힐링관광에 대한 연구는 여행의 치유 효과를 평가하거나 힐링관광 참가자의 행동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힐링관광의 사회적 측면보다는 개인적, 심리적 차원에서 접근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힐링관광이 관광에서의 신자유주의가 관철된 한 현상으로 이해할 때 이러한 개인적, 심리적 접근은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힐링현상이 실재하는 것처럼 힐링관광 현상이 실재한 것인지 아니면 힐링현상을 차용한 담론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힐링관광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힐링관광 담론뿐만 아니라 힐링관광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힐링 현상이 관광에 확장·적용된 것으로 이해하고, 힐링관광을 관광에서의 신자유주의화, 또는 관광 부분에서 신자유주의적 논리의 관철로 간주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경제정책·사상으로서의 신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자유주의를 고찰하여 신자유주의의 경제질서, 지배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주체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힐링관광에 대해서는 다소간 혼란스럽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힐링관광을 피로에 따른 치유나 위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힐링관광을 신자유주의적 주체의 '자아의 기술'로 이해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힐링관광에 대한 주관적, 심리적인 접근에서 나오는 현상적인 시각이라면, 후자는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주체의 자기관리 및 자기경영 전략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후자의 시각에 근거하여 힐링관광의 사회적 의미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힐링관광은 신

자유주의적 위로문화이자 치유문화로 이해한다. 여기에서는 힐링관광을 피로사회의 문화적 귀결이자, 신자유주의의 병리학적 귀결로 간주하며, 자본의 노동지배의 결과로서 힐링관광 현상이 등장했다고 본다. 둘째, 힐링관광을 신자유주의의 문화적 주체형성 기제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힐링관광은 개인의 교양이나 품위, 문화적 고상함으로 위한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힐링관광이 자아를 관리하고 계발하는 행위가 된다. 또한 힐링관광은 개인이 자신을 최적화하는 수단/기술이자, 자유롭게 행하는 자기규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힐링관광이 자아의 기술로서, 무한경쟁과 사익추구가 지상과제인 성과사회에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아를 최적화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관광 여행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전환을 통해 심리적 최적화를 이루는 것은 '성과사회'에서 자신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아 최적화의 수단/기술이라는 것이다. 이때의 힐링관광은 자기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 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사회에서의 자기계발은 동시에 자기착취이기도 하다. 치유 자체도 자기계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과사회에서 자기를 최적화하기 위한 힐링여행은 의무이자 강제이며, 자기착취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힐링관광은 자기착취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힐링관광은 '치유'와 '위로'를 관광상품화 하는 것이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피로와 소진, 탈진에 처한 개인들은 위로와 치유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위로와 치유도 상품화되고, 개인들은 이를 구매한다. Harvey(2007)는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것이 신자유주의 특징이라고 강조하였다. 힐링관광도 마찬가지다. 힐링관광은 관광에서 치유와 힐링이 상품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 여행 그 자체로 이미 치유적이고, 일상에서 힘들고 지칠 때 관광 여행은 작은 위안이 된다. 그럼에도 힐링관광이 등장하는 것은 피

로와 치유를 상품화한 것에 다름 아니다. 힐링관광을 포함하여 다양한 힐링현상의 배후에는 마케팅의 논리가 감추어져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국내에서 힐링 현상은 다소 주춤하고 있다. 힐링의 속성상 개인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개인적인 힐링이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는 있을 지라도 힐링을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환경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힐링관광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위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힐링관광의 이해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힐링관광을 포함하여 힐링을 필요로 하는 근원은 개인적인 측면과 함께 사회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나, 후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힐링관광의 이해를 위해서는 힐링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 글은 우리 사회에서의 힐링관광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사회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했다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미정·유형숙(2015). 템플스테이 체험 참가자들의 주관성 연구. 『관광학연구』, 39(8), 277-290.
 김병용(2015). 힐링욕구가 호텔외식 기업의 문화마케팅 중요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9(3), 93-107.
 김성구(2014). 『신자유주의와 공모자들』. 서울: 나람북스.
 김성희(2012). 힐링으로서의 교양교육: 학습을 촉진하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 『교양교육연구』, 6(4), 439-461.
 김진옥·김도영(2015). 힐링관광 참여자의 주의회복과 치유프로그램에 대한 감정이 삶의 만족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24(4), 161-178.
 류한소(2012). 신자유주의적 위로, 치유문화. 『문화

과학』, 69, 206-213.
 문강형준(2012). 자기계발의 시대, 미세하고 부드러운. 『문화과학』, 69, 121-130.
 _____(2015). 『감각의 제국』. 파주: 북노마드.
 박소진(2009).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주체. 『경제와 사회』, 84, 12-39.
 박종선(2013). 『웰니스 관광객 유형에 따른 혼잡지각 감소를 위한 분산방법과 극복행동의 태도 차이』. 미발행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박주영·노기배·홍석기(2011). 로하스 소비의식이 로하스 상품소비에 미치는 영향: 쾌락·득실·규범목표를 매개로. 『대한경영학회지』, 24(4), 1879-1894.
 삼성경제연구소(2013). 힐링을 힐링하다: 힐링열풍의 배경과 발전방향. 『CEO Information』, 897, 1-19.
 서동진(2003). 기업가적 정신 혹은 탈근대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주체. 『당대비평』, 26, 139-153.
 _____(2009).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서울: 돌베개.
 _____(2010).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해부학 혹은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문화과학』, 61, 37-54.
 서민(2014). 힐링이여, 가라: 기생충학자가 본 힐링열풍의 명암. 『시인과 세계』, 246-257.
 신동일(2013). 『제주지역 힐링관광 발전방안 연구』. 제주: 제주발전연구원.
 신윤천(2013). 웰빙의 새로운 진화 '힐링 브랜드'. 『Marketing』, 7, 34-42.
 오현주·이미순(2014). 힐링 관광자원 도출에 관한 질적 연구. 『관광·레저연구』, 26(5), 23-40.
 유강하(2012). 도가니 신드롬을 통해 본 문학의 치유적 의미에 대하여. 『아시아문화연구』, 27, 147-171.
 윤상우(2009).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83, 40-68.
 이근식(2005). 『자유와 상생』. 서울: 기파랑.

- _____ (2009). 『신자유주의: 하이에크·프리드먼·뷰캐넌』. 서울: 기파랑.
- 이러정 (2015). 문화마케팅 활동과 힐링 및 사회적 책임간 관계. 『관광연구논총』, 27(4), 275-50.
- 이상봉·류시영·송운강(2013). 여행경험과 심리치유간의 관계. 『Tourism Research』, 38(1), 77-97.
- 이정철 (2015). 농어촌지역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방안: 웰니스/의료관광을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27(1), 75-92.
- 이진의·김진옥·김남조(2015).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 트레커의 참여동기, 웰니스, 만족도, 충성도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관광학연구』, 39(6), 225-244.
- 이진형·박종선(2014). 힐링열풍과 관광개발: 개념, 사회문화적 배경과 사례. 『동북아관광연구』, 10(1), 1-17.
- 임운택(2010).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의 발전단계와 헤게모니 전략에 대한 이념형적 분석: 네오그람식 이론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88, 300-337.
- 장하성 (2015). 『왜 분노해야 하는가』. 성남: 헤이북스.
- 장하준(2014).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김희정 역). 서울: 부키.
- 정명중(2010). 인문과 치유, 그 접합을 위한 제언. 『인간연구』, 18, 99-137.
- 정지혜·김민희(2012). 불안한 시대, 불안한 고객을 위한 처방. 『LG Business Insight』, 1212, 16-23.
- 조광익(2006). 『현대관광과 문화이론』. 서울: 일신사.
- _____ (2010). 『여가의 사회이론』. 서울: 대왕사.
- 주현식(2011). 한국인의 로하스(LOHAS)에 대한 생활양식 측정도구 개발. 『관광·레저연구』, 23(1), 25-44.
- 중앙일보(2016.02.03.). 힐링은 기만이었다. <http://news.joins.com/article/print/19519827>
- 최병두(2007).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과 공간정책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1), 82-103.
- 한병철(2012). 『피로사회』(김태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 _____ (2015). 『심리정치: 신자유주의의 통치술』(김태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 Chen, J., Prebensen, N., & Huan, T. (2008). Determining the motivation of wellness travelers. *Anatolia*, 19(1), 103-115.
- Foucault, M.(1990). 『성의 역사 I』(이규현 역). 서울: 나남출판.
- _____ (1994). 『감시와 처벌』(오생근 역). 서울: 나남출판.
- Harvey, D.(2007).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최병두 역). 파주: 한울아카데미.
- McDonald, M. (2011). Stressed and depressed, Koreans avoid therapy. *The New York Times*, July 6.
- Verhoef, M., & Mulkins, A. (2012). The healing experience: How can we capture it? *Explore*, 8(4), 231-236.

2016년 3월 9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6년 4월 1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6년 4월 11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후